

# 일본의 새소식



#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신년사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2월로 한국에서의 근무도 3년째를 맞아, 과거 두 번의 근무와 합치면 총 7년의 한국 근무가 됩니다. 40여 년 전 외무성에 들어와, 불어 연수를 받고 프랑스에 약 5년 동안 머물렀지만, 이제 한국과의 인연이 가장 깊어지고 한국어가 가장 친숙한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해보면, 계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충돌,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동, 안보보장이 사회 결의 위반 등 일한 안보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5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방한을 거쳐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정상회담이 7차례 개최되는 등 일한 관계는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재무장관 대화 및 통화스와프 합의, 경제안전보장대화, 차관전략대화, 고위급 경제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미한 3국에서도 폭넓은 레벨의 대화가 진전되어 8월에는 처음 단독으로 일미한 정상회의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한 양국의 대화도 몇 년 만에 재개되어 9월에는 전주에서 일중한 문화장관 회의가, 11월에는 부산에서 일중한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도 지난해 일한 양국에서 모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어, 양국 합쳐 총 1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네다 · 김포 노선이 20주년을 맞는 한편, 한국에서 일본 지방 도시로 직항편이 재개되면서 일한을 잇는 항공노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도 회복되고 있어, 일한 양국은 서로의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 각지에서 한국을 방문한 200명 가까운 일한 친선 협회

회원분과 350여 명의 육상 자위대 간부 후보생을 만날 기회도 있었기에, 인적 왕래의 활발함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대사관 활동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류되었던 천황 탄생일 리셉션을 4년 만에 개최할 수 있어 오랜 만에 많은 분과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1972년 완공 후, 재작년 기준으로 준공 50년이 된 대사 관저가 10개월에 걸친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거쳐 일본적인 분위기와 근대적 설비를 갖춘 관저로 거듭나며, 자위대 기념일 리셉션을 비롯한 대형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글로벌 과제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창생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올해도 일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일한 양국 및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 가와세 가즈히로 공보문화원장 부임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가와세 가즈히로(川瀬和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이래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 거리에 수많은 일본식 술집과 음식점이 있는 점, 일본 여행이 매우 활발한 점(2023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 4명 중 1명은 한국인입니다) 등 한국인에게 일본이 친숙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은 문화 사업의 계절로 '한일축제한마당',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일본과의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단체나 대학 등에서 일본어와 일본 관련 과목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한 문화 교류라는 흐름의 폭과 깊이 그리고 관계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한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7차리에 걸친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일한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흐름을 착실하게 이어 나가고,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 올봄에는 현재 대사관 내로 임시 이전했던 공보문화원이 새로운 장소에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일한 국민 간의 상호 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좋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가와세 가즈히로(川瀬和広)

## 약력

- 1995년 외무성 입성
- 1998년 주나이지리아일본국대사관 2등서기관
- 2000년 통상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석유부 계획과
- 2001년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석유·천연가스과
- 2002년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안전보장정책과, 홍보문화교류부 종합계획과,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제1 국제정보관실 근무(~2008년)
- 2008년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조직 제4 국제정보관실 수석사무관
- 2009년 외무성 국제협력국 국별개발협력 제3과 수석사무관
- 2010년 외무부대신 비서관
- 2010년 외무대신관방 국제보도관실 수석사무관
- 2012년 주말레이시아일본국대사관 참사관
- 2015년 외무성 경제국 경제협력개발기구실장
- 2017년 내각관방(일본경제재생종합사무국) 내각참사관
- 2019년 외무성 대신관방문화교류·해외홍보과장
- 2021년 주영국일본국대사관 총괄공사 겸 총영사
- 2023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장(현)

<시리즈2> 한국에서 찾은 일본 건축가

# 한국에서 찾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 본태박물관





기하학적 구조로 상상력과 호기심을 부르는 본태박물관

세계 최고의 건축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와 건축을 <시리즈 1>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찾은 일본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타이틀로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건축물을 <시리즈2>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제주도에 위치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을 볼 수 있는 본태박물관을 소개한다.

\*\*\*한국에는 가평 한화인재경영원(2008년 경기도), 제주도 유민미술관과 글라스 하우스(2008년 제주), 본태박물관(2012년 제주), 뮤지엄산(2013년 원주), JCC ARECENTER&JCC CREATIVE CENTER(2015년 서울), 마음의 교회(2015년 여주), LG아트센터 서울(2022년, 서울) 등의 작품이 있다.



### 안도 다다오(Tadao Ando, 安藤忠雄, 1941~)

1941년 오사카 출생.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한 후 1969년 안도 다다오 건축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표작으로는 빛의 교회, 아와지 유메부타이, 폴리처 미술관,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지추미술관, 폰타델라 도가나, 상하이 폴리 대극장 등이 있다. 1979년 스미요시 주택으로 일본 건축학회상, 1993년 일본예술원상, 1995년 프리츠커 건축상,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AIA) 금메달, 2005년

국제건축가연합(UIA) 금메달, 2010년 일본 문화훈장, 2013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Commandeur), 2015년 이탈리아 공로훈장(GRANDE UFFICIALE) 등을 수상했으며, 1991년 뉴욕 현대미술관, 1993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인전 개최, 예일, 콜롬비아, 하버드 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부터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 본태박물관 bonte museum

## 본태박물관에 담긴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

본태박물관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 특징을 집대성한 곳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이 담겨 있다.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징을 기반으로 빛·물·바람 등 자연적 요소를 담아내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노출 콘크리트라는 인공적 재료와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일본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양 건축 답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일본 전통 가옥 구조의 반영은 안도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태박물관은 안도의 건축 철학과 같은 맥락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설립 취지에 기반하여 전통공예품과 현대미술품을 전시로 선보이고 있다. 박물관의 방향성과 가치를 건축 설계 시부터 반영했으며, 대조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한국 전통 기와 돌담길과 노출 콘크리트라는 요소는 본태박물관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다.

### 인간과 건축과 자연의 교감 - 미로와 같은 동선, 건축적 산책로



안도 다다오는 자신의 건축물을 통해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고, 시각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노출 콘크리트 벽체를 활용한 미로와 같은 동선과 그 동선 사이에 더해진 자연적 요소는 외부와 내부, 공간과 공간을 융합시켜, 관람객의 참여와 공간적 체험을 끌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건물 외부 곳곳에 독립적인 벽체를 사용하여 동선을 유도하거나, 앞으로 펼쳐질 공간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기도 하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창문이나 통창을 내어 외부와 내부를 빛을 매개로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이끌어냄으로써 수공간을 설계하여 물과 바람의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감각적인 자극을 끌어낸다. 안도 다다오는 이처럼 관람객을 고려한 동선과 자연을 더한 설계를 통해 ‘공간 속에서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자연을 담아낸 공간 - 산·물·바람·빛



본태박물관은 한국 남단의 최고봉이자 화산섬인 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에 설계되었으며, 서쪽 경사면에 맞닿은 해발 400미터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거센 바람과 급변하는 날씨 등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위치이기도 하다. 안도 다다오는 이러한 제주도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으며, 관람객이 본태박물관이 위치한 환경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과 대지 환경을 품은 박물관을 설계했다.

## 산 Mountain

본태박물관 곳곳에서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395m 높이의 '산방산'을 주요 풍경으로 담아 설계했으며, 건축물의 벽체나 통창을 활용하여 프레임과 높이를 조절하여 같은 축의 산방산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 물·바람 Water·wind

안도 다다오는 수공간의 설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하면서도,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 속 관람객의 감각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물길에 비친 빛은 다시 건물로 반사되거나 건물을 투영하며, 물길과 수경 폭포 주변으로 부는 바람은 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만들어내어 관람객의 청각과 촉각을 자극한다.

## 빛 Light

빛은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안도 다다오 건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 요소라 할 수 있다.

본태박물관 곳곳에는 온전히 빛과 건축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공간과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조각 작품 같은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안도 다다오는 빛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공간을 연결하고, 보는 사람에게 공간의 색다른 경험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안도 다다오가 담은 빛은 외부의 시간과 날씨 등 그 지역의 환경을 그대로 담아내며, 공간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다.



## 한국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

본태박물관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립자의 고민과 가치가 반영되어, 소장품을 기반으로 ‘현대미술과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안도 다다오는 본태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한국 전통공예품에서 영감을 받아 그만의 방식으로 공간 곳곳에 녹여냈다.



### 안도 다다오가 소장품에서 받은 영감

‘조각보’는 한국 고유의 민속문화로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조각조각 이은 보자기다. 기교가 없는 것이 기교로 느껴질 만큼 조각보의 패턴과 색감은 현대적으로 느껴진다. 안도 다다오는 조각보의 간결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본태박물관의 두 공간에 반영했다.

### 조각보 텃밭

제1 전시관 입구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텃밭이다. 규칙에 따라 이어 붙인 듯 정갈한 조각보 텃밭과, 오밀조밀하게 조각 땅을 채우고 있는 조약돌은 거대한 건축 공간 속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 조각보 스테인드글라스

제2 전시관 ‘명상의 방’을 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다. 1층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명상의 방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하여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외부에서부터 1층 그리고 2층 명상의 방까지 공간을 연결해 주고 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테인드글라스는 은은하게 비치는 모시 천 조각보를 걸어둔 듯 차분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 한국 전통 풍경, 한국 전통 기와 돌담

한국 전통 기와 돌담은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와 함께 박물관 외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본태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한국 전통공예품을 바탕으로, 건축에서 한국 전통의 요소를 반영하고자 했다. 한국 전통 기와 돌담길을 활용하여 제1 전시관과 제2 전시관을 분리하면서도, 각 전시관의 중앙에 위치시켜 공간과 공간을 감아 이어주는 듯한 독특한 구조로 설계했다.



##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 기획전’ 《Seeking the Soul》

본태박물관에서는 설치미술 ‘호박’과 ‘무한거울방’의 작가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 Yayoi Kusama, 1929~)의 기획 전시 <Seeking the Soul>이 2024년 2월 29일까지 개최된다. 현재 총 5개 전시관에서 한국 전통 민속품과 현대 미술의 거장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 기획전시관(제5전시관)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설치미술부터 판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 중이다. 그녀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설치미술과 판화 총45점을 전시하고 있어 쿠사마 야요이의 예술적 진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쿠사마 야요이는 최근 타일을 소재로 호박 작품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본태박물관에서 소장중인 호박(Pumpkin, 2013)과 비슷한 크기의 호박 작품을 최초 공개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니크한 형태와 아름다움으로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본태박물관측은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진행되는 쿠사마 야요이의 기획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람객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하며, “본태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만들어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전시>



《쿠사마 야요이》 STARRY PUMP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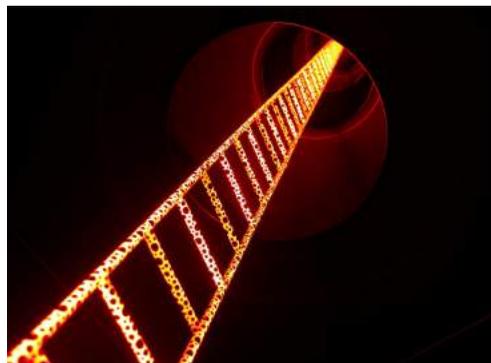
《쿠사마 야요이》 The Universe as seen from the stairway to he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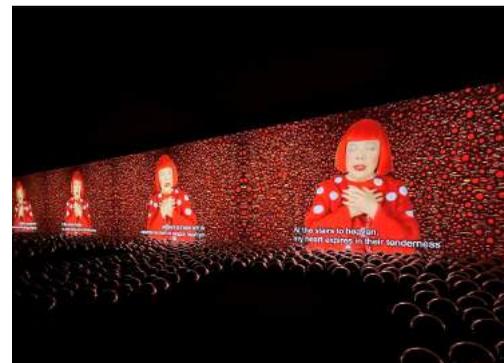
《쿠사마 야요이》 Invisible Life



《쿠사마 야요이》 기획전 전시 공간



《쿠사마 야요이》 Ladder to Heaven



《쿠사마 야요이》 Narcissus Garden

# 딸기 초콜릿 롤케이크

오야마 히토미 강사가 전하는 일본 디저트에  
담겨있는 일본 문화를 소개한다.



집필 오야마 히토미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 일본 양과자의 특징

일본은 생일 외에도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입학, 졸업, 어린이날, 어머니 날, 크리스마스,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양과자를 먹을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축하하는 자리에서 케이크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과자의 본고장으로는 프랑스가 유명하지만, 일본의 양과자는 프랑스 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은 후, 일본만의 특색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케이크 중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크는 딸기 쇼트케이크입니다. 딸기 쇼트케이크는 192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케이크는 원래 미국의 쇼트 브레드라는 쿠키에 생크림과 딸기를 샌드한 것으로, 이것을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여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  
일본의 취향에 맞게 새로 만든다’  
이것이 일본인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롤케이크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만든 케이크 중의 하나입니다. 1950년에 ‘스위스 롤’이라고 하는 롤케이크가 제빵 회사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 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두꺼운 스펀지 반죽에 버터크림을 얇게 발라 말아준 심플한 케이크입니다. 저렴하고 잘라먹기 쉬운 케이크는 가정에서 간식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그 후, 롤케이크는 스펀지 반죽이 카스텔라처럼 촉촉하고 폭신한 반죽으로 바뀌고, 버터크림 대신 생크림이나 과일을 사용하여 말아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히트 상품은 쫀득한 반죽에 생크림을 듬뿍 넣어 말아준 ‘도지마 롤 (堂島ロール)’입니다. 적당한 가격과 반죽의 식감, 입에서 부드럽게 녹는 크림은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요소입니다.

일본의 양과자는, 제과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양과자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자와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유통 경로가 있었기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딸기 초콜릿 롤케이크



## 롤 반죽 \*27cm x 27cm 철판 1장 분량

노른자 50g      코코아 파우더 12g  
 설탕 A 36g      베이킹 파우더 (1.5g) 1/2t  
 식용유 24g      흰자 120g  
 뜨거운 물 60g      설탕 B 50g  
 박력분 68g



- ① 노른자에 설탕A를 넣고 거품기로 섞는다.
- ② 1에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는다.
- ③ 2에 뜨거운 물을 넣고 섞는다.
- ④ 가루 종류를 잘 섞은 후, 체에 내려 3에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는다.
- ⑤ 흰자를 거품기로 잘 푼 후, 설탕 B의 반을 넣고 거품을 올려 거품기 끝으로 떠 올려봤을 때, 부드러운 뿔이 생겼다면 남은 설탕을 넣고 끝부분이 뾰족한 뿔이 생길 때까지 거품을 올린다. (머랭)
- ⑥ ④에 머랭의 반을 넣고 마블 상태가 될 때까지 섞는다.
- ⑦ 남은 머랭을 넣고 머랭의 흰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걱으로 섞는다.
- ⑧ 철판에 균일하게 밀어 펴 180°C의 오븐에서 15분간 굽는다.

## 샐티 크림

생크림 270g  
 마스카르포네 치즈 30g  
 설탕 15g  
 연유 20g



- ①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소량의 생크림으로 잘 풀어 덩어리가 없어졌다면 남은 생크림을 넣고 섞는다.
- ② 설탕과 연유를 넣고 얼음물에 올려 단단하게 휘핑을 한다.

## 가나슈

초콜릿 50g  
 생크림 50g



- ① 초콜릿을 다진 후, 데운 생크림을 넣고 섞는다.
- ② 퍼바를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될 때까지 상온에서 보관한다.

###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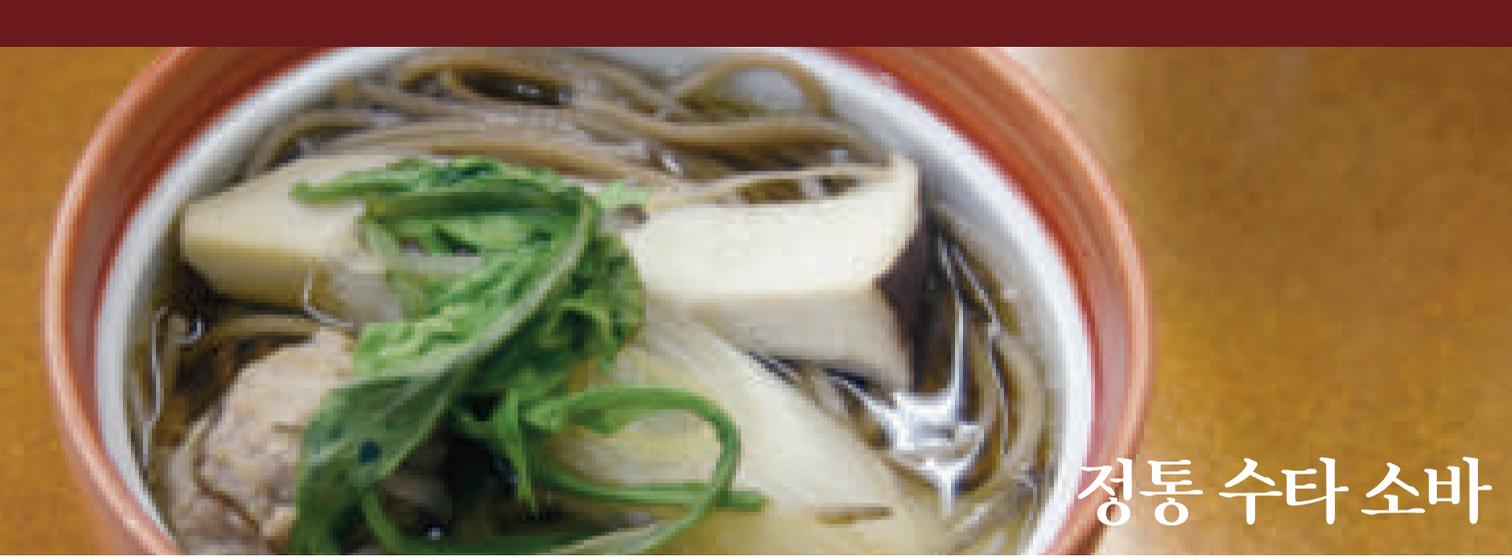
딸기 6개 - 롤 반죽 속에 넣을 딸기  
 딸기 - 장식용 딸기  
 슈거파우더  
 타임



- ① 딸기는 꼭지를 제거하고 1/4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 ② 롤 반죽보다 큰 종이 위에 롤 반죽의 구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올린 다음, 말았을 때 끝 모양을 잡기 위해 한쪽 끝을 사선으로 조금 잘라준다.
- ③ 샹티 크림 200g을 바른다. 이때 끝 부분에는 크림을 조금만 발라준다.
- ④ 롤 반죽 아랫단에서 3cm가 되는 곳에 1/4로 자른 딸기를 올린다.
- ⑤ 종이와 반죽을 같이 들어올려 롤 형태로 만든다.  
 이때 30센치 자를 이용하여 딸기 주변에 반죽을 가지고 가는 느낌으로 말면 예쁘게 말 수 있다.
- ⑥ 종이로 말아준 상태로 냉장고에서 차갑게 1시간 정도 보관한다.
- ⑦ 표면에 남은 샹티를 바르고 가나슈로 모양을 낸다.
- ⑧ 양쪽 끝을 잘라내고, 딸기와 타임을 얹어 장식한다.

자세한 요리 영상은  
 [일본문화원 YouTube] 에서 확인해 주세요 :)





# 정통 수타 소바

지난 12월 8일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에서 전통 수타 소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특별 강연이 있었다. 2013년부터 소바, 우동을 담당하는 후쿠오카 신슈소바 무라타(信州そば村田)의 오너 셰프인 무라타 타카히사(村田隆久) 강사로 부터 소바 육수 만들기과 곁들임 요리 등이 소개되었다.



## 무라타 타카히사 오너 셰프 미니 인터뷰

**소바, 우동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일본의 식문화를 한국에 전해달라는 나카무라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바, 우동이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부터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의 변화가 있었나요?**

항상 느끼고 있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과 관계자부터 수강생 여러분의 열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강생의 실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소바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소바에는 몸속의 나쁜 성분을 내보내는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키(粹) 문화'가 있어서 '멋있다', '세련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바 가게에서 사계를 마시면 풍류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과 멋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젊은 친구들이 소바, 우동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웃으면서 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아들도 이 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01-02 특별 강연 모습
- 03 감자 샐러드 하루마키 튀김
- 04 소바
- 05 고등어 미소조림 츄케우동
- 06 가지 츄쿠네 가츠오부시 튀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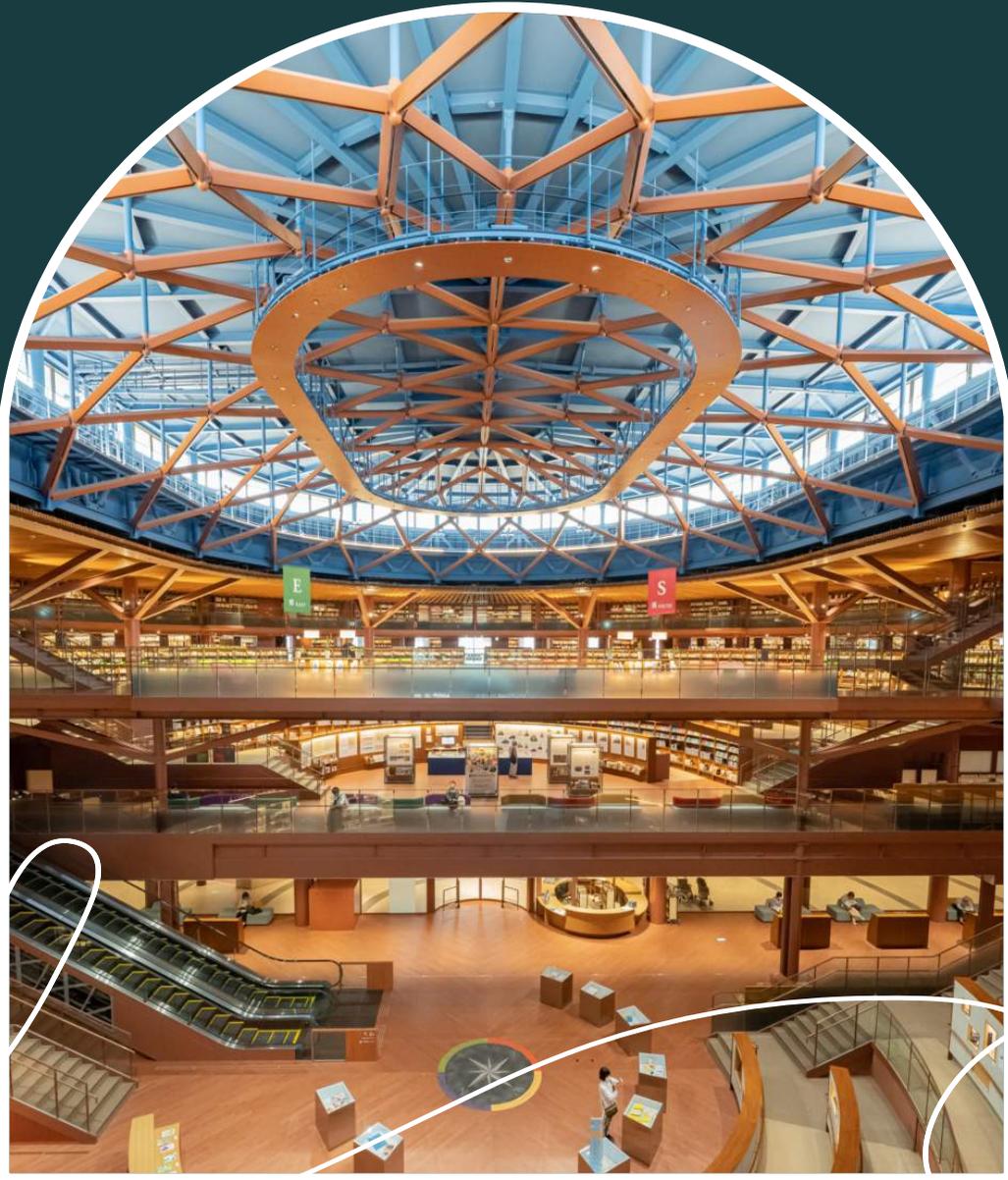
- 07-08 오리고기 전골
- 09 요리에 사용된 조미료



새로운 일본 여행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글 · 사진 : 박용준  
endeva@naver.com

#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일본에는 각 지자체 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특한 건축과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찾는 도서관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 환경디자인 연구소, 센다 미쓰루가 설계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은 1966년부터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인근에 있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2022년 7월 16일 가나자와 시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가나자와대학 공학부 자리로 이전했다. 환경디자인 연구소의 건축가인 센다 미쓰루(仙田満) 씨가 설계했다.

연면적 22,380㎡의 넓은 부지에 건축되었으며 인근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능한 주택에서 멀리 있게 하기 위해, 부지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고 주변을 주차장과 정원으로 만들었다. 콜로세움과 같이 중앙에 커다란 돔 지붕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북 갤러리와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탐구형 도서관을 목표로

종래의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책 대여 중심이 아닌 도서관 안에서 책을 찾고 연구하는 과제 해결형, 탐구형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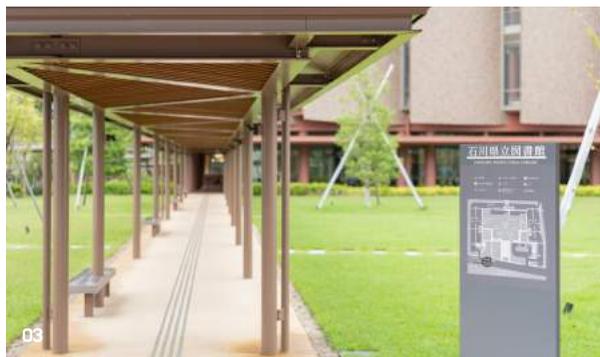


01



02

01-03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04 도서관 1층 입구 주변



03



04



또 지역 커뮤니티, 지역 문화, 전통문화와의 연동, 자료 보관 등 여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총 500석이 넘는다. 보관 중인 서적의 규모도 상당하여 진열된 서적은 약 30만 권, 지하 창고에 200만 권까지 보관할 수 있다.

### 테마로 나뉘어 360도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

서적은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나뉘어 진열되어 있으며,

중앙 홀에 둥글게 나열되어 있는 책은 테마에 따라 나뉘어 있다. 테마 타이틀도 재미있어 ‘호기심을 품는다’, ‘세계로 뛰어나간다’, ‘일을 생각한다’, ‘생활을 넓힌다’ 등으로 나뉜다.

수많은 책을 따라 빙글빙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면 3층 중앙부에 도서관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 있다. 이곳에서는 360도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볼 수 있으며, 방문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06



07



05-07 테마로 나뉘어진 서적 진열  
08-11 도서관의 수많은 책과 3층 다리

###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다양한 공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의자와 소파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각각 다른 디자인과 크기의 의자와 소파가 도서관 곳곳에, 책과 서재의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책 속에 묻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 전망을 감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나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등 다양한데, 이는 도서관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도서관을 찾게 한다.

###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단단히로바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1층 안쪽에 위치한 어린이 공간인 고도모에리어는

유아와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신발을 벗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두었으며 타워, 해먹, 계단 등 다양한 구성으로 놀이와 함께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어린이 공간에서 외부 정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숲인 오히나시 모리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입구에는 계단과 소파로 이뤄진 1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단단히로바가 있다.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간단한 공연, 세미나, 회의 등 다양도로 이용할 수 있다.



12



13



14



15



16



17

12~14 책과 서고 사이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16~17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의 의자  
21 전망을 감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15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자리  
18~20 책 속에 묻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



18



19



20



21



22



23



24



25

22-24, 26-28 타워, 해먹, 계단 등 다양한 구성으로 놀이와 책을 만나는 공간  
29-30 유아와 초등학생, 부모가 함께 하는 공간

25 입구의 계단과 쇼파로 이루어진 다용도 공간  
31 어린이 공간에서 외부정원으로 이어진다



26



27



28



29



30



31

### 도서관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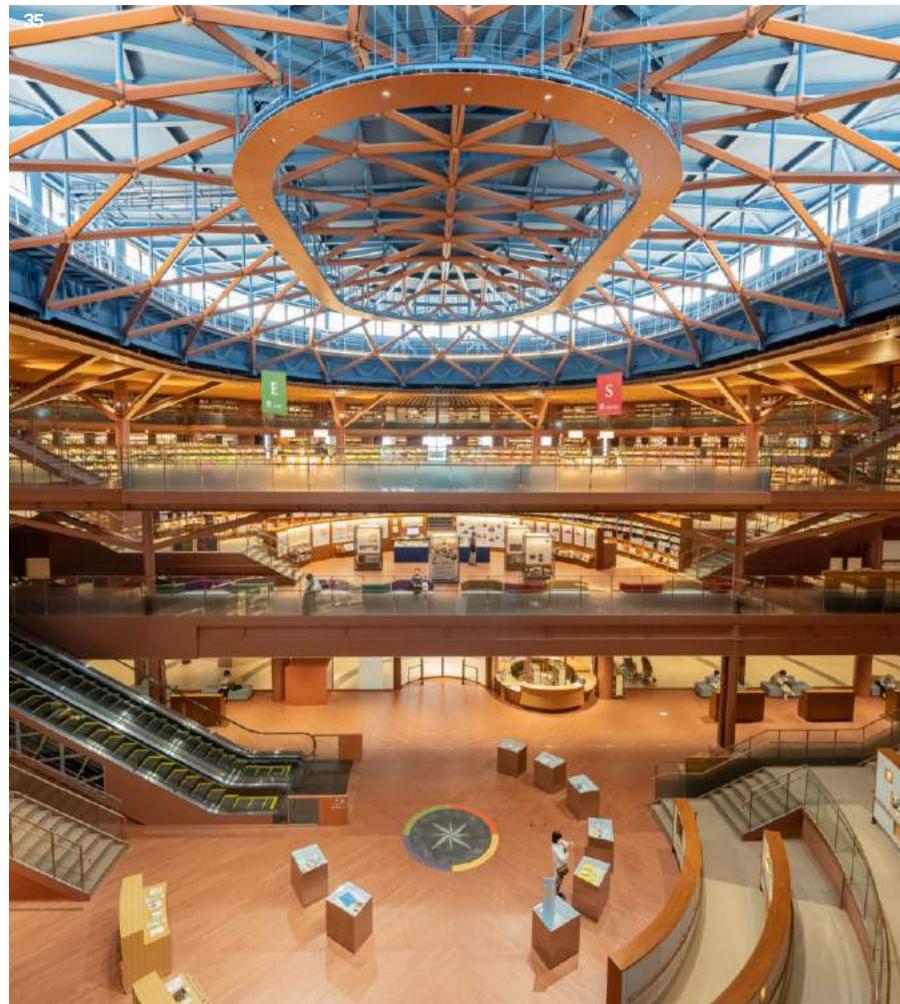
도서관 1층 남쪽에는 가나자와 인기 카페인 하루안도 고 (HUM&Go#)가 입점해 있어 간단한 요기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한정 메뉴인 도서관 브랜드 커피 등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 이시카와현 핫플레이스

150억 엔이라는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공공도서관.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핫플레이스와 문화 공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도서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제법 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공간과 잘 진열된 책, 각기 다른 디자인의 의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일본을 알게 되는 여행이 될 것 같다.



32-34 도서관 카페에서 한정 메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5 아름다운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2024년 1월 1일, 최대 진도 7의 '레이와(令和) 6년 노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카와 노부코의 여기는 지금

따뜻한 정을 느낀

# 한국에서 지낸 1년



글·사진 :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한일축제한마당 홍보 메세나





사전 홍보로 진행된 서울과 도쿄를 잇는 첫 좌담회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축제’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일축제한마당’ 그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테마인 ‘우리가 그리는 미래’ 모습이기도 한데, 문화 교류의 즐거움을 방문객은 물론 자원봉사자 여러분 각자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4부 피날레에서 ‘요사코이 아리랑’을 함께 추고 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축제를 함께 하고 싶어요!”라며 밝은 웃음으로 사진을 찍는 방문객과 자원봉사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은 한일축제한마당이 20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연자, 자원봉사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일본 유행어 대상은 ‘A.R.E’

일본에서는 매년 12월 유행어 대상을 발표하는데, 2023년은 한신 타이거스의 슬로건인 ‘A.R.E’였습니다. 58년 만에 재팬 시리즈에서 간사이 팀인 센트럴 리그의 한신 타이거스(오사카)와 퍼시픽 리그의 오릭스 버펄로스(고베)의 대결이었습니다! 한신 타이거스의 우승은 무려 38년 만으로 일본 전역에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슬로건! A.R.E는 목표를 의미하는 ‘Aim’과 존중을 의미하는 ‘Respect’, 파워 업을 의미하는 ‘Empower’라는 세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레(アレ), ‘ARE’ 하며, 우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 만들어진 조어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팀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야구와 선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RE야 ARE’하고 말한다면 간사이 특히 오사카, 고베에서는 대화가 무르익을 거예요.

### 한국의 ‘정’과 새해 인사

작년에는 오랜만에 사계절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을 향기를 느끼면서 제철 식재료와 음료를 마시며 야외에서 치맥도 하고, 김장 김치도 받았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을 즐기며, 한국의 ‘정(情)’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정하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조금 표현이 바뀌지만, 한국의 정은

당연히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초여름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식생활과 언어도 바뀌었으니 ‘어서 고쳐야 할 텐데’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전에, 한방과 한식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 지식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정’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던 한국에 있던 웃으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거 같습니다.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전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는 사람으로 넘쳐났는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오쿠보에서 故 이수현의 흔적을 찾다

사랑, 한 청년이 놓고자 했던 국경을 초월한 가교

글·사진 : 차준호  
일본문화원 리포터 9기



**“선악의 피안. 그곳은 선악의 판단이나 도덕을 완전히 초월한 곳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곳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사랑의 행위에는 가치 판단과 해석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초역 니체의 말 :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 중**

**궁극적인 도덕, 사랑에 관하여**

선과악, 그 상대적이고 이항 대립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모든 갈등과 대립, 그리고 차별을 극복하여 인류를 위한 진정한 ‘도덕’을 시행하는 것. ‘사랑’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도덕이다. 모든 이해관계와 갈등을 아득히 초월하여 인간 그 자체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에 사랑의 힘은 위대하며, 그 힘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에 숭고하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언뜻 보기엔 너무나도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희생하여 모든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은 큰 결심이 따르는 일이다. 특히 개인이 더욱 중요해진 현대에 이르러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희생과 헌신을 선뜻 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 또한 이런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그 숭고함의 가치를 잃어가던 중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청년의 이름을 이웃 나라 일본에서 다시 기억해내기 이전까지 말이다.

**현장 취재**

일본 취재의 첫날이자 일본 청년들과의 만찬과 대화와 외무성 강의가 이어지며 ‘한일 양국의 우호와 평화’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었던 9월 29일의 저녁. ‘한국의 리포터들이 꼭 시청했으면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외무성 측에서 제공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면서 그제야 그 청년의 이름을 비로소 기억해낼 수 있었다. ‘故 이수현.’

우리에게는 같은 ‘동포’이지만 일본인에게는 외국인이었다던 유학생, 그럼에도 그는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의인(義人). 22년 전, 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서 그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큰 감동을 주었다.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었기에, 더군다나 자신은 이방인이었기에 지나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다는 선택지에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짙게 깔려 있었기에 찰나의 순간을 외면하고 그러한 위험을 굳이 무릅쓰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26일, 그 날의 이수현 씨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선택을 했다. 국경과 국적, 차이와 이해관계 이 모든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었다.

비극적이게도 이수현 씨는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그가 실현 시키고자 했던 ‘사랑’은 일본에 큰 울림을 선사했고, 그의 유지는 오늘날까지 기억되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본인이 그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LSH 아시아 장학회’는 수많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전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가 되고자 했던 이수현 씨의 지와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은 죽음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을 비추어가고 있다.

01 이수현 씨 다큐멘터리  
 02 신오쿠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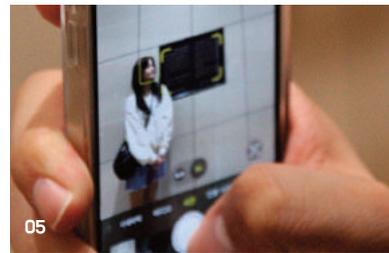


그로부터 이틀 뒤, 취재를 위해 신오쿠보(新大久保)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22년 전 이곳에는 용기와 사랑이 있었다. ‘한국인’에서 ‘외국인’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하고자 한 청년의 의지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간극을 극복해낸 인류애가 신오쿠보역 플랫폼에 가득 차 있음을 생생히 느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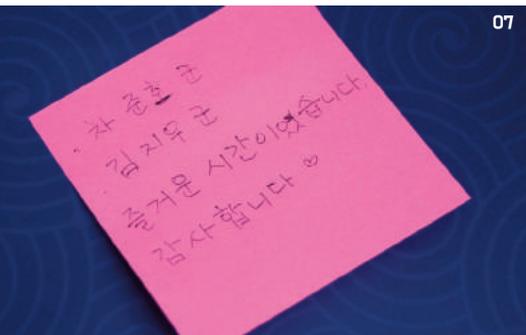
작지만 많은 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있었던 역내의 현창비는 국가를 초월한 추모의 연대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자 하는 작은 기억들이 모여 만들어낸 그 광경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또 누르고 있었다. 같은 국적의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를 반드시 기억해야 했음에도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자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개찰구를 통과하여 역에서 나오자 정겨운 한국의 문화와 그곳을 찾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신오쿠보의 모습이 펼쳐졌다. 2011 동일본 대지진과 2013년의 반한 헤이트 스피치,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꾸준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역경을 딛고 한류와 한일 관계의 중심지가 되어왔다고 한다. 일본의 수도 도쿄의 중심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색채가 어색하게 혼재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를 생생히 실감해볼 수 있었다. 20여 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났던 이수현 씨가 바랬던 풍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이수현 씨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를 추모하고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감상평처럼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서로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 큰 가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뤄진 여러 차례의 인적교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 순간만큼 서로는 다름과 이해관계를 모두 초월하여 친구로서 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번 리포터 활동에서의 모든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동 세대의 일본 청년들과 함께했던 ‘한일축제한마당’과 교류회, 그리고 일본인 가족들과 함께했던 홈스테이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작은 가교를 놓아 나갈 수 있었다. 그 만남의 순간만큼은 그 어떠한 갈등도, 아픔도, 차이도 없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04-05 이수현 현창비  
06 신오쿠보 풍경  
07 한일축제한마당 일본인 참가자가 준 응원 메시지



**끝으로**

‘한국인, 외국인, 이방인, 유학생’. 다름을 나타내는 이 모든 호칭을 벗어던진 채 ‘사람’ 이수현이 보여준 ‘사랑의 힘’, 그리고 그를 잊지 않은 모든 이들이 이어간 국적을 초월한 기억의 연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이자 교과서가 될 것이다. 청년 이수현이 만들어가고자 했던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의 마음, 그리고 사랑이 모여 만들어진 가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원한다.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의 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동문의 밤 행사와 참가자 인터뷰를 소개한다.



협력 한일공총동문회 준비위원회



11월 25일 서울에서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동문의 밤이 개최되었다.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총리와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상호 장학금 등을 절반씩 부담하여 매년 1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까지 10년 연장에 합의했고, 2017년 재연장은 성사되었으나 기존의 학부 유학에서 대학원 및 단기 유학 제도로 변경되었다.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양국의 든든한 가교가 되고 있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한 동문의 밤에는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동문회는 현재 600명 정도의 귀국 유학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진로 정보 교류회와 동문의 밤 이외에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일본의 새소식에서는 동문의 밤에 참여한 참가자 인터뷰를 소개한다.

## ❖ 참가자 인터뷰 ❖

###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준(5기)** 2004년 연수를 받고 10월부터 사이타마 대학으로 가서 2005년부터 7년간 석사까지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전기전자시스템 공학과로 석사는 전기전자 공학부를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연구소에서 11년째 패널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영(2기)** 2001년 선발되어 그 해 10월 일본에 갔고, 2002년 입학하여 2006년 3월 졸업했습니다. 고베대학 응용화학과에서 유학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팀에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영업 비밀, 소송 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Q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유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현준(5기)** 유학이 흔치 않던 시절, 일본어 담당 교사인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전형으로 학생을 유학 보낸 경험도 있으셨고, 수능과 전형 시기가 겹치지 않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이 프로그램에서 생활비까지 지원 받아 부담이 없어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준 (5기)



정원영 (2기)



**Q 유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현준(5기)** 대학원 합격 순간, 취업 순간 등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학부 때 밴드 동아리를 했는데 일본 친구와 합숙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여름 방학 때 4박 5일 동안 즉석에서 팀을 짜서 공연하고 오는 합숙 훈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과 가끔 연락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일공동이공계 유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본인의 인생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요? 일본 유학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현준(5기)** 제 인생을 결정지은 큰 사건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유학 중 만난 사람이나 친구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이 입사로 이어지면서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정원영 (2기)

**정원영(2기)** 가시적으로는 일본어가 주특기이자 무기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난 것입니다. 초기 기수라 1기 선배 외에는 학부를 다녀본 선배도 없어 좌충우돌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친구를 만난 것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Q 유학생 동창회 참석을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준(5기)**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이 매년 100명씩 배출되지만, 모든 학생이 일본 각지로 흩어지며 연락이 끊어지는 게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동문회라는 조직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생기면 꼭 참석하려 했는데, 마침 올해부터 시기가 맞아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준 (5기)

**정원영(2기)** 한 기수가 100명으로 연락 못하고 지내던 친구를 10년 만에 동문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오랜만에 만나 소식도 듣고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게 되고, 동기가 아니더라도 같은 학교 후배 혹은 다른 학교지만 일본공대라는 큰 공통점으로 묶여 있어서 좋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비유학을 준비 중인 후배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현준(5기)** 최대한 현지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인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유학생 생활 중 잘한 게 있다면 서클 활동 등 현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입니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인 친구가 많아지면서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Q 진로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원영(2기)** 저는 공대 졸업생으로 방향의 시기를 거쳐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열정을 갖고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재능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 동문 회장 인터뷰

**Q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동문회 조직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토대학 1기, 한일공동이공계 총동문회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현재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대 총동문회는 10 여명의 운영위원이 동문회 활성화로 자발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동창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이공계 분야의 공부를 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2천 명에 이르는 동문이 대학이나 연구소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법조계 그리고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등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정서를 토대로 정보를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으로서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동문의 조직된 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동문회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원 (1기, 동문 회장)

**Q 동창회 기획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초기에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 어려웠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극복했습니다. 각자 현업에 종사하며 자원봉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은.**

올해 진로 정보교류회와 동문회 밤 행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는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600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기존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취미 소모임, 기업 간 모임, 대학 연구회 세미나 모임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것 하나로 교류나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동문회라도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바랍니다.

- 01~02 동문의 밤 1부 모습
- 03 단체사진



01



02

한일공동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s://hanilgong.notion.site/462ab0aebb0848bbb426d842e046d9a0>



03

제5회 동문의 밤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총동문회  
일시: 2023년 11월 25일(토) 18시~21시 장소: 서울 코리안호텔 다이아몬드홀

# 제9회 전국대학생 일본어연극대회를 마치고

11월 18일(토) 오후 2시,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대학생 일본어연극대회가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오바이토리(桜梅桃李) 팀의 그랑프리 수상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 4년 만에 개최, 그랑프리는 강릉원주대학교

4년만에 열린 이날 대회에 참가한 다섯팀은 오랜 연습시간과 그 동안 쌓아 올린 일본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뛰어난 실력의 각축 결과로 길어진 심사 회의는 참가 팀과 관객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강릉원주대학교 팀원과 응원단은 팀이 그랑프리에 호명되자 크게 포효하며 객석을 들쭉이게 만들었다. 2014년에 이어 9년 만에 두 번째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랑프리 \_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오바이토리

최우수상은 과거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이치고이치에 팀에게 돌아갔다. 전통 있는 일본어연극팀 다운 훌륭한 연기로 최우수 연기상 남자배우 부문도 함께 가져갔다. 우수상은 역시 전통의 강호 단국대학교 일본학과 히마와리의 몫이었다. 2017년 우승팀인 단국대학교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연기로 3위에 입상했으며, 최우수 연기상 여배우 부문도 차지했다. 이 외에 대전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학과 이로도리 팀은 첫 출전에 당당히 일한교류상에 입상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팀 히미와리는 일한우정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_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이치고이치에



참가 팀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리허설부터 본 대회까지 9시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시종일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대회를 즐겼으며, 시상식 종료 후 이어진 기념 촬영 때는 각 팀들 모두 상대 팀의 연기와 극을 칭찬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4년만에 열린 대회는 내년 11월에 열릴 제10회 대회를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수상 결과

그랑프리 : 강릉원주대학교 일본학과 오바이토리(桜梅桃李)  
공연 제목 : 일본어 「나」 사전(日本語「私」辞典)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이치고이치에(一期一会)  
공연 제목 : 봄에 꽃필 그 때까지(繡に花咲くそれまでに)

우수상 : 단국대학교 일본학과 히마와리(ひまわり)  
공연 제목 : 녹는 점(融解点)

일한교류상 : 대전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학과 이로도리(彩り)  
공연 제목 : 로르샤흐(ロールシャッハ)

일한우정상 :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히마와리(ひまわり)  
공연 제목 :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奇跡)

최우수연기상 여자배우 부문 : 단국대학교 일본학과 1학년 김지오  
최우수연기상 남자배우 부문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2학년 김석우



우수상 \_ 단국대학교 일본학과 히마와리



일한교류상 \_ 대전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학과 이로도리



일한우정상 \_ 가톨릭대학교 일어일본문화학과 히마와리



# 10주년을 맞이한 ‘한일포토콘테스트’ ~공항에서 만난 올해의 수상 작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한일 양국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문화, 인적 교류 촉진 및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 10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인과 일본인 대상으로 ‘한일 양국의 매력’을 테마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하여, 약 2,600명으로부터 역대 가장 많은 약 9,500장의 작품 응모가 있었다. 그 중, 공동주최 및 후원 기업, 기관의 심사를 통해 총 30작품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한일포토콘테스트 콘테스트 10주년’과 ‘김포-하네다 개항 20주년’을 기념하여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수상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의 배경 장소를 궁금해하며 수상작품을 감상하거나, 비치된 지자체 홍보 책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공항 이용객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양국 간 왕래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공항에서 열린 이번 수상작품전에서는 여행과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수상작품은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공항에도 전시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12월 9일에 개최된 시상식은 김포국제공항과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온라인 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 종료 후 진행된 수상작품 관람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인 수상자와 행정기관 및 기업 인사가 수상작품을 관람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수상작품을 찍던 순간과 추억을 회상하며 저마다의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일본에서 방문한 한 수상자는 “콘테스트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되어 기쁘고, 즐거운 여행을 만끽할 생각이다”라며 콘테스트 취지에 맞게 한일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한 활발한 문화 교류를 기대하며 올해의 수상 작품을 소개한다.



나가사키현상  
나가사키의  
한여름 밤을 수놓는 불꽃  
AHN DONG KYUNG



오кина와현상 붉은 벚꽃 핀 나가진성터 PARK YEONG IM



산인상 예상치 못한 만남  
HONG SOON HYUN



아오모리현상 아오모리의 운치  
KO KEON YOUNG



시즈오카현상 후지산 액자 IHN CHEE HYUCK



에히메현상 순례자의 휴식 PYO TAE EUN



제주관광공사상 제주도 함덕 SHIMMURA YUKIO



아키타현상 진격의 나마하계 LIM JIN YEONG



제주특별자치도상 거목 KIM KI SEUNG



Nikon상 추억과 기억, 그리고 다시 추억 YU JAE WOO



Epson상 골목길이 주는 낭만 PARK KYOUNG SIK



김포공항상 하네다 바다에서 비행기와 후지산을 담다 SUMIYOSHI YUKI



JAL상 일본의 정겨운 우아함 KIM JAE WOO



Canon상 부처님과 즐기는 벚꽃구경 tway상 장인과 부채  
KIM KANG HOON SEO HYO JEONG



ANA상 겨울 CHOE JUN HO



INTERPARK상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SATO MOTOKI



LEXUS상 해안가를 달리는 빨간 열차 LEE SANG JUNE



서울관광재단상 거울 같은 수면 IDA AKANE



Inpainter Global상 일상의 시작 KIM SANG HAN



주한일본대사관상 세계유산의 노을 LEE JAE HYOUNG



특별상 솜사탕 NAGAI R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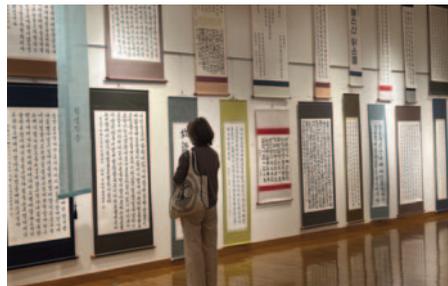
제주올레상 구름 속에 감춰진 제주의 보석 GI KYUNG HEE



Vector Com상 산책하기 좋은 날씨 NISHI MASASHI



주한일본대사관상 비 내리는 나가사키 PARK JIN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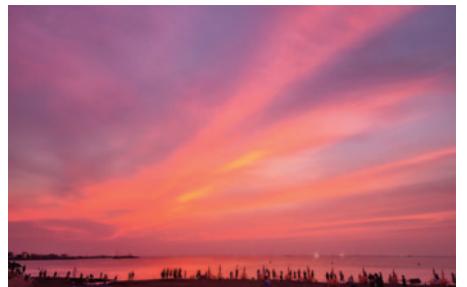
특별상 일본에서 한글 서예를 감상하다 MURAMATSU KAZUYO



타쿠미콘상 도쿄타워 JEON JANG HYUN



CLAIR상 사슴과 노을 JEONG KYU JIN



제주총영사관상 붉은빛과 바다 KIM SO YEON



특별상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CHOI HYO JAE

